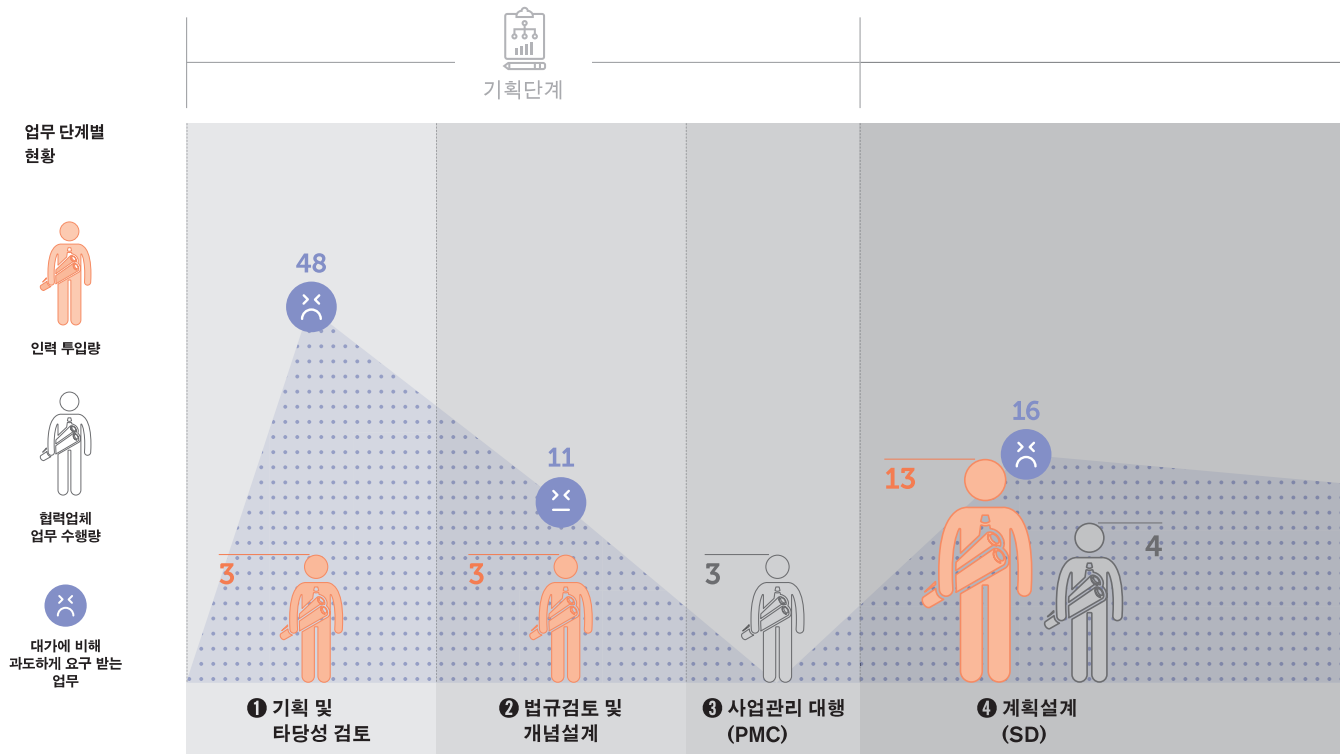


건축서비스산업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 조사*

❶ 인력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업무는?

㉠ '실시설계'에 가장 많은 인력이 투입됨

인력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업무로 '실시설계'(73명)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기본설계'(20명)와 '계획설계'(13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실시설계'는 협력업체의 업무 수행량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른 업무에 비해 매출은 높으나 부가가치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 조사에 활용된 건축서비스산업의 업무 프로세스는 「건축법」 제23조 제3항,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93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을 통해 도출하였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육성방안 마련하기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에 대한
 체감도와 건축서비스산업의 현황과 관련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벌였다. 설문조사는 2015년 12월 2주간 이메일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조사 대상은 건축설계 전문가로 약 120명이 응답하였다.

❓ 발주처가 대가에 비해 과도한 업무를 요구하는 업무는?

Ⓐ '기획 및 타당성 검토' 시 부당한 요구를 당하는 경우가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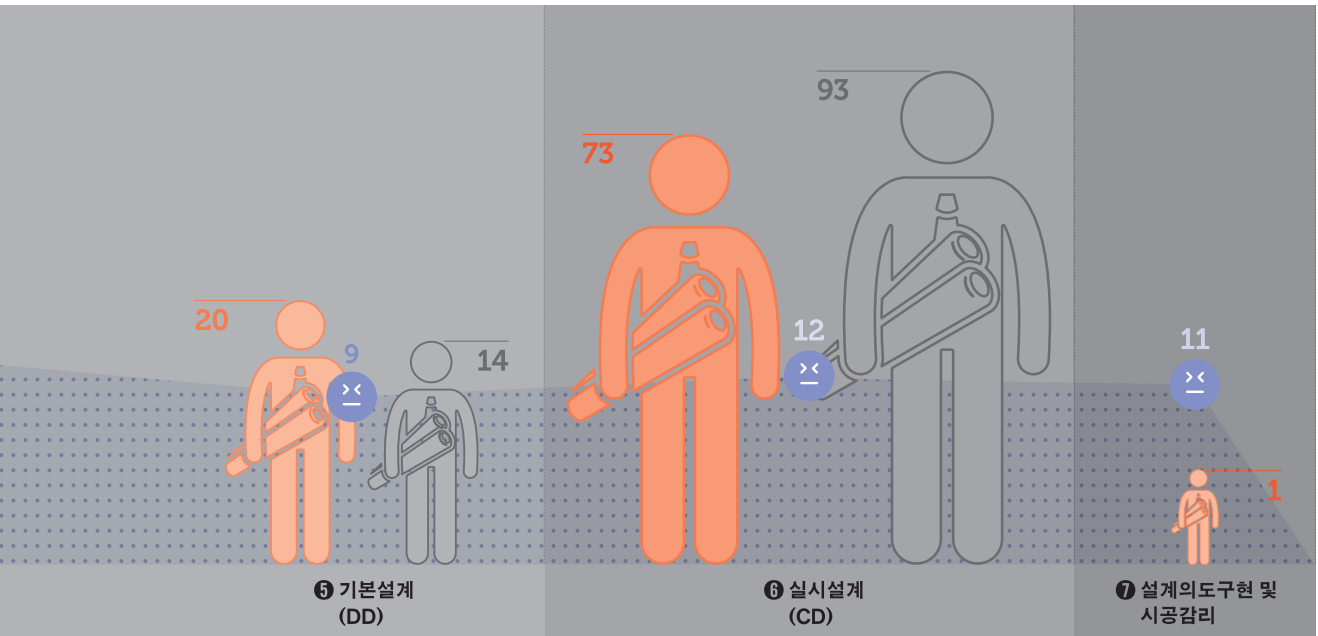
발주처가 낮은 단가로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강요하거나, 기간에 비해 과도한 양의 용역을
 요구하는 등 업체의 손해가 큰 업무를 조사한 결과, '기획 및 타당성 검토'(48명) 수행 시 가장
 큰 손해가 발생했다고 응답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기획 및 타당성 검토를 무상으로 수행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단계



시공단계



Q 투입 인력과 비용 대비 이윤이 가장 적은 업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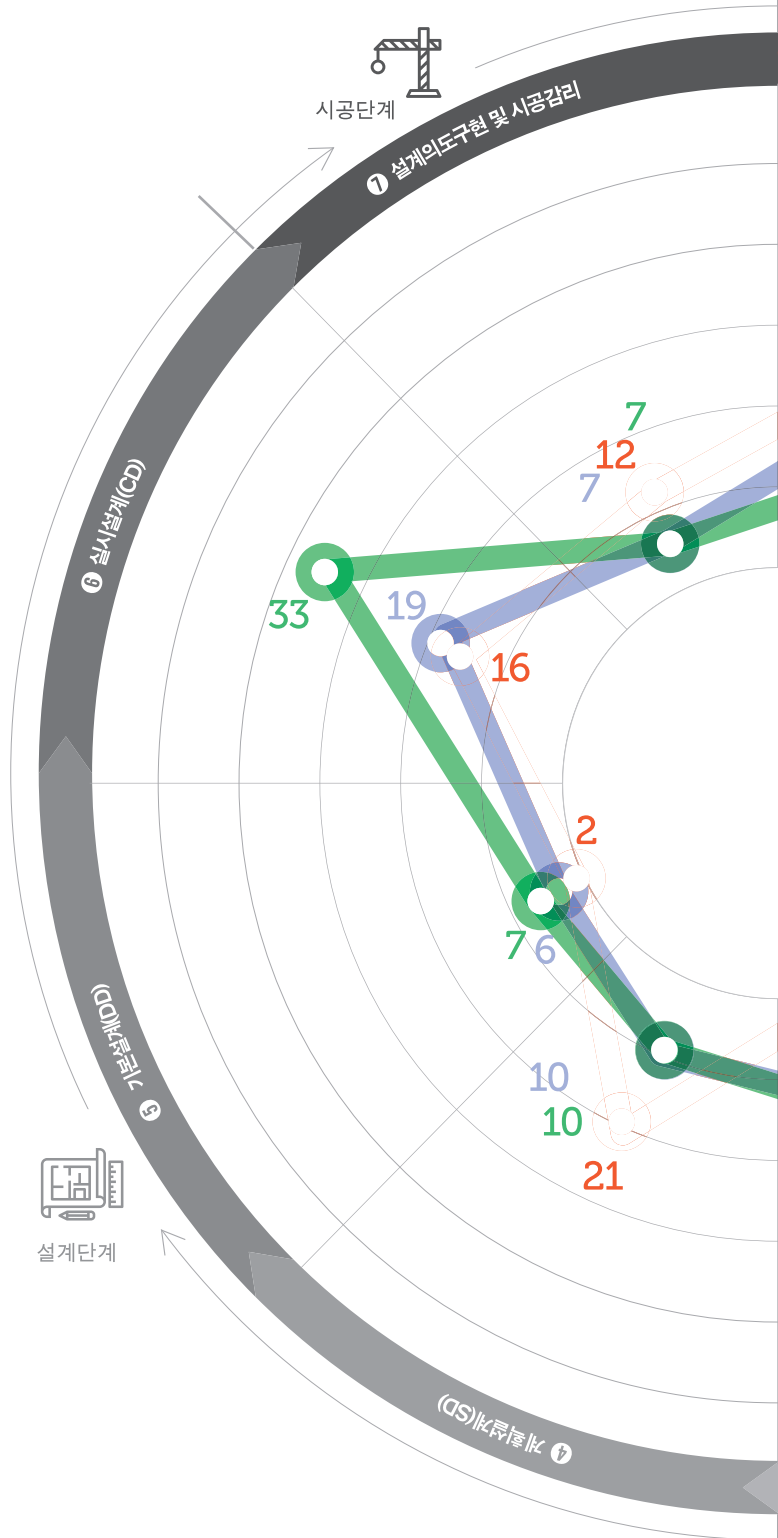
A 영업 이익률이 가장 낮은 업무는 '기획 및 타당성 검토'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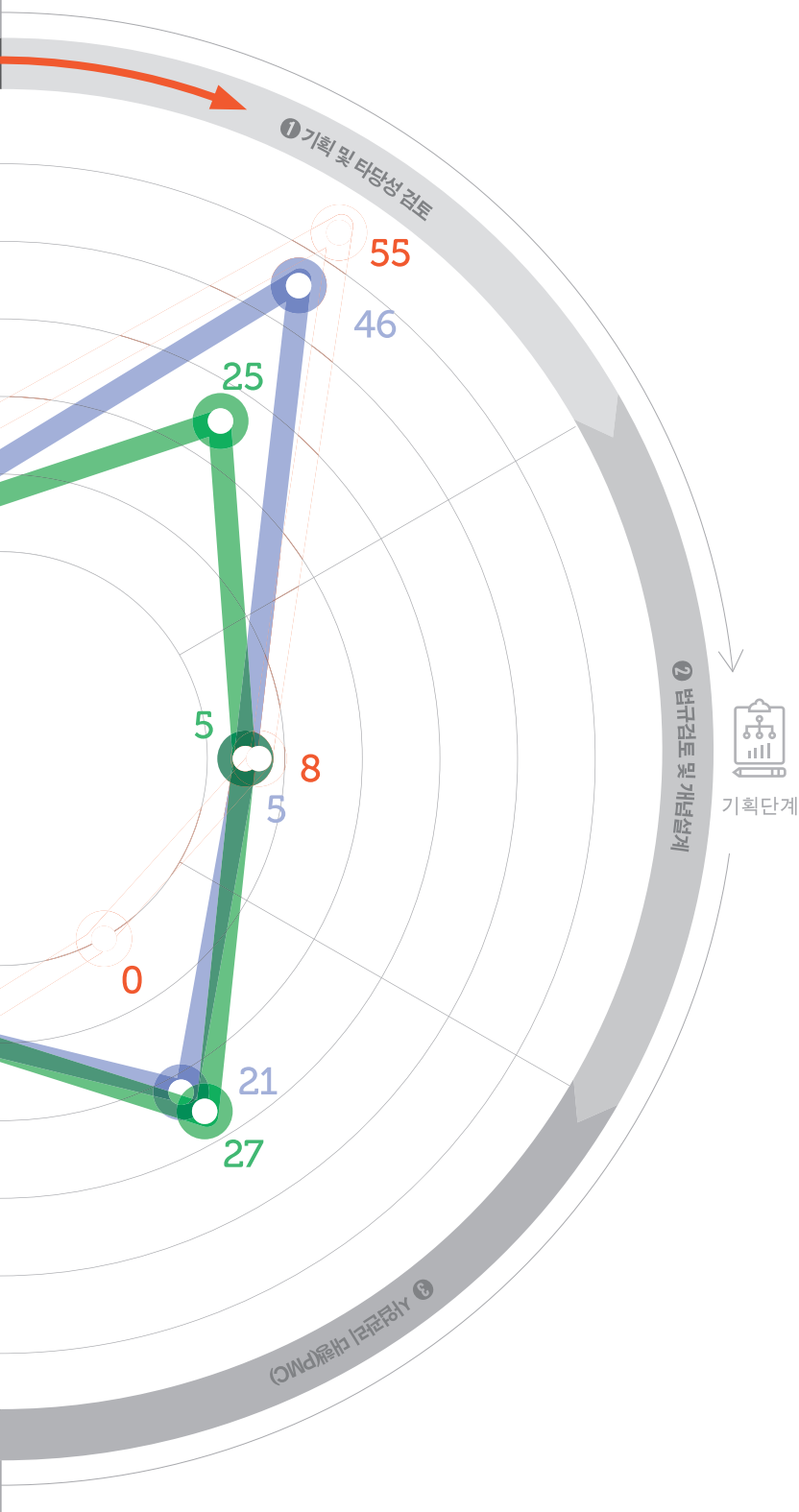
영업 이익률이 가장 낮은 업무로 '기획 및 타당성 검토'(55명)를 선택한 전문가가 가장 많았다. 이는 다른 업무에 비해 전문 능력을 갖춘 고비용의 인력이 투입됨에도 적정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Q 전문 인력이 부족한 업무는?

A 실시설계를 수행할 전문 인력이 가장 부족함

실시설계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답변(33명)이 가장 많았으며, 사업관리 대행 전문 인력(27명), 기획 및 타당성 검토 전문 인력(25명)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Q 향후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책적 육성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업무는?

A 부가가치가 높은 '기획 및 타당성 검토'의 정책적 육성과 제도 개선이 필요함

정책적 육성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업무 단계로는 '기획 및 타당성 검토'(46명)가 가장 높았으며, 그 밖에 '사업관리 대행'(21명)과 '실시설계'(19명)라는 답변이 뒤따랐다. 기획단계의 업무가 설계단계 업무에 비해 경쟁강도가 낮고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정책적 육성과 함께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전문 인력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도 비슷한 응답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정책적 육성 및 제도 개선'이 '전문 인력 부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해당 업무에 대한 인력 양성이 정책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업무 단계별 현황

- 영업 이익률이 낮은 업무
- 전문 인력이 부족한 업무
- 제도 개선이 필요한 업무